

이업종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 노력강화

지식, 기술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확대

개 요

- 중소기업간 이업종 교류활동은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의 미흡에도 자생적인 교류활동이 추진되고, 정책지원도 '89년 도입이래 지역별 교류행사 개최, 홍보 및 교육 등 외형적 인프라 구축 등에만 치중함으로 이업종 교류단계에서 정체
 - 성장가능이 높은 융·복합기술에 대한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과 차별화된 경쟁적 전략지원이 필요
 -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단일 업종의 기술협력이 아닌 이업종간 지식·기술의 교류를 통한 융합화의 지원*을 통해서만 가능
- 이업종 교류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
 - 공동사업, 융합기술개발 등 기업간 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지원 수요발굴 및 신규영역 확충 등으로 미래 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
 - 교류활성화를 위한 협력문화 확산, 신성장분야 융합기술발굴, 성공정착을 위한 코칭시스템 구축, 융·복합과 제에 대한 패키지프로그램 구축, 전문기업간 인프라구축 등 기술융합 고도화 필요

중소기업간 이업종협력 현황 및 평가

- 이업종교류 협력현황
 - 전국 13개 지역연합회를 중심으로 274개 단위교류회에 5,684개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 중(09.3월 기준)
 - '09년 교류지원은 중소기업이업종한마음대회, 이업종교류경진대회, 국제이업종심포지엄, 대·중소기업상생



협력채용박람회, 지역연합회지원, 교류전문가 활용, 정보화 확충, 조사연구, 교육훈련 등에 지원

- '01년부터 '09년까지 총 34.7억원 지원('09년 : 4억원)

■ 이업종 단위교류회 교류활동 실적

- '89년 출범후 '09년까지 전국 274개 단위교류회 별로 경영 및 기술정보의 교류, 회원간 수발주, 융합기술개발, 사회봉사 등의 활동 전개
- 유형별로 보면 정보교환형(83.6%), 자원협력형(30.8%), 융합기술개발형(신제품개발, 24.1%) 순이며, 기술개발 실적이 있는 이업종교류회는 46개(23.6%), 72건의 실적이 있었음 (활동목적은 중복응답)
 - ☞ 정보교환형 : 경영 및 기술정보교류, 정책사업정보취득, 인맥확장 등을 목적으로 활동
 - ☞ 자원협력형 : 회원사간 수발주, 인적자원교류, 사업협력 등을 목적으로 활동
 - ☞ 신제품개발형 : 신기술, 신제품,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

■ 분석 및 평가

- 기업정서상 동종 업종간 보다는 이업종간 교류가 조직 측면에서 견고하고, 교류활동도 기타 업종별 단체들에 비해 양적으로 훨씬 활발함
 - ☞ 연간 월례회 개최 빈도수 11회/년, 전체 93.3%의 교류회에서 회원 참석율이 70%이상
 - 특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, 조직구성 및 성과관리 등이 부족하고,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참여도에 비해 융합R&D의 성과는 미흡
- R&D 활동 등 구체적 활동목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, 교류회 구성간 결속력과 지속적인 참여 유지가 중요
 - 자발적인 교류활동 지속과 융합R&D 지원역량을 제고하고, 관련 교육 및 성과관리 강화 등 구심점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

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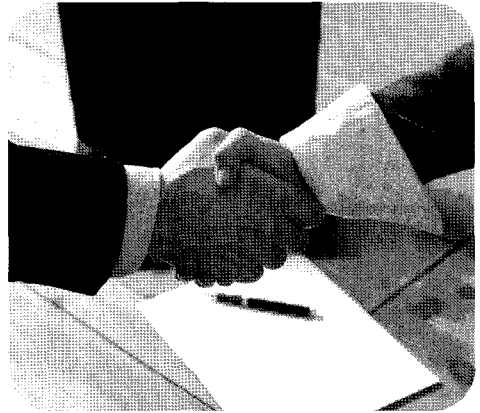
■ 기업간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

- 자발적인 교류활동 참여와 기업간 협력문화의 확산, 이업종 교류 인식강화, 지식·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·운영

■ 신성장분야 중소기업형 유망과제 발굴·육성 확대

- 신성장동력분야를 중심으로 R&D 유망과제 도출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개발, 기업협동형개발 등 '10년 R&D지원의 선도과제로 선정
- 기존 단위교류회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교류회를 구성, 분야별 정책지원 수단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·육성

-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중심으로 별도의 프로젝트 단위협력체는 협력체 당 20백만원 이내 정부(75%)+기업(25%) 매칭지원(10년 50개, 10억원)



■ 이업종간 지식·기술융합 성과확산을 위한 코칭시스템 구축

- 성공사례 발굴·확산을 위한 선·후배 기업간 성공 노하우를 공유·확산하고, 지식·기술융합 성공 정착을 위한 코칭시스템 구축
- 전담 코디네이터 운용으로 교류회 초기부터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파트너 매칭, 기술융합을 조정하는 사전 기술기획, 교류기법(기술 세미나 및 연수 강화)을 지원

■ 이업종 전문기업간 지식기술융합 활성화 인프라 구축

- 단위교류회(274개)의 구성현황, 활동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(업종) 및 유형별 전문기업간 DB구축으로 통합 정보교류망 구축
- 이업종중앙회 홈페이지(www.koshba.or.kr)를 보강하여 DB를 구축하고 제도개선, 과제발굴 등 정보교류형 홈페이지로 변경 운영
- 이업종교류회 동향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계관리 체제의 구축('09.12)

■ 이업종교류 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

- 이업종중앙회는 정책수요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, 지역연합회는 지역 특성에 부합된 분야별 공동사업 발굴을 확대하고, 단위교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

■ 이업종 관련 제도적 기반정비

- 일본의 “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”을 토대로 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”에 ‘이업종교류, 융합화, 신사업진출’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정책지원 수요 등을 보완 할 필요
-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지원근거를 통합·정비하여 단일법 제정시에는 ‘이업종교류 및 융합화 조합’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신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